

# 離任辭



한 형 석  
(주)마니커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수많은 현안에 대해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 3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사태와 육계 자조금 사업 시행,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시행 등 우리 닭고기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과 제도 시행이 유난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미력이나마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고 회원사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종계 D/B화 사업이나 육계 자조금 사업 등과 같이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회원사 여러분의 지원이 물심양면으로 있었기에 그 동안 크고 작은 성과를 올렸고, 어려운 시기를 대과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정의 타결로 우리 업계는 다시 한번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언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계육 업계에는 큰 시련이 될 것이며, 앞으로 미국산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회원사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자랑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아 한국계육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중심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힘껏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협조해주신 회원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따라주신 협회 임직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